

# 내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 가능

### 2020년 10월 '마스크 의무' 도입...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시민들 '일상으로의 복귀' 기대감...“진짜 끝나는 것 같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만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내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없이 대화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산할 전망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와의 작별을 실감한다”며 일상회복이 본격화된 것 같아 반갑다는 반응이 나온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게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됐다. 특히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는 물론 일부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내 마스크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예비 고등학생 박현지(16)양은 “중학생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며 마스크 착용이 여러 제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곧 전역을 앞둔 현역 장병 김모(22)씨는 “대학에서의 1년과 군대에서 보낸 1년6개월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까지 해제되면 진짜 평범했던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 것 같다”고 했다.

4살 자녀를 둔 주혜지씨는 “그간 아이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입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언어 학습도 느려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의무가 없어졌다고 해도 한동안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것이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가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는 등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는 대학생 김모(23)씨는 “코로나에 걸려보니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그

고통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30일 이후에도 최소 두세 달은 더 쓰고 다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마스크에 익숙해진 탓에 교실이나 사무실 등 다중이용 장소에선 벗는 것이 어색할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합격해 입학에 기다리고 있는 최민서(19)씨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실에서 마스크를 썼다”며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에 들어가는 게 낯설 것 같아 한동안은 쓰고 다닐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체에 종사하는 박모(29)씨도 “회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면 뭔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살핀 후 조심스럽게 벗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 여수경찰,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여수경찰(서장 정성록)은 19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찰발전협의회장 이종섭 등과 함께 여주시 학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봄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무안경찰, 설맞이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나눔 위문 행사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철중)는 무안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에 설 명절 맞이 따뜻한 온기 나누는 위문 행사를 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 담양경찰, 설날맞이 가정폭력등 보호가정 위문 재발방지 당부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설날을 맞아 관내 가정폭력등 보호가정을 방문위문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강진경찰-안보자문협의회, 설 명절 맞이 탈북민 위문품 전달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와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규후)는 지난 18일, 설 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떠나 강진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진=김영일기자



### 광양소방, 불꽃·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생활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광양=김현근기자



### 완도해경, 설 명절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9일, 외부에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완도군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 코로나 누적 확진 3천만명 넘어...전세계 7번째

### 누적 3000만8756명, 5명중 3명꼴 설날 9227명 확진, 106일만 최소 위중증 450명, 엿새 연속 400명대 중증 병상 29.5% 가동...사망 26명

설날인 지난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106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3명이 확진 이력을 갖게 된 셈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227명 늘어 누적 3000만8756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00일(3년3일)만에 30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5명 중 3명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다. 최근 당국이 내놓은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는 5명 중 3.5명이 감염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난 2021년 3월 24일 10만명이 됐고 다시 10개월 반 뒤인 지난해 2월 5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해 3월 22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00만명으로 감절이 된 것은 4개월 반이 지난 같은 해 8월 2일이였다. 이후 다시 겨울 유행을 거치며 5개월 만에 3000만명에 도달하게 됐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누적 사망자 수도는 전 세계 34번째다.

설날 당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1만6624명보다 7397명 적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설 연휴 진단검사 건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10일(8973명) 이후 106일 만이다. 월요일(발표일) 기준으로는 15주 만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1439명, 경기 2356명, 인천 543명 등 수도권이 4338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4889명(53.0%)이 나왔다. 경남 664명, 부산 581명, 경북 515명, 전남 392명, 전북 379명, 대구 342명, 대전 335명, 충북 319명, 강원 303명, 광주 292명, 충남 276명, 울산 210명, 제주 209명, 세종 58명, 검역 1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9167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6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검역 단계에서 14명, 지역사회에서 46명이 각각 확진됐다. 내국인은 32명, 외국인은 28명이다. 유입 추정 국가는 중국 29명으로 49.3%를 차지한다. 중국 외 아시아 22명, 미주 5명, 유럽 2명, 아프리카·효주 각 1명이다.

신규 입원환자 수는 75명이다. 전날(80명)보다 5명 줄었다. 주간 하루 평균 신규 입원환자 수는 114명이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0명이다. 전날(460명)보다 10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8일부터 엿새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00명으로 전체의 88.9%에 달한다. 80세 이상 183명(40.7%), 70대 140명(31.1%), 60대 77명(17.1%)이다. 50대 29명, 40대 6명, 30대와 10세 미만 각 5명, 10대 3명, 20대 2명 순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5%다. 병상 1565개 가운데 1103개가 비어 있다. 일반 병상으로 분류되는 중등중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13.3%로 1565개 중 1357개가 남아 여유가 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6명으로 직전일(24명)보다 2명 늘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 13명(50.0%)씩이다. 사망자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80세 이상 14명(53.9%), 70대 7명(26.9%), 60대 5명(19.2%)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3235명,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1%이다.

지난 20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집중자는 누적 596만8647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집중률은 12.6%다. 최일기기자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단계 발령

경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 겨울 처음으로 한파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한 24일 오전 서울 중로구의 한 가압장에서 직원이 동파된 계량기를

## 분양권 불법전매 40대, 징역 2년

수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이종으로 전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는 사기,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통해 얻은 경기도 내 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고 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피해자에게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계약금,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4억1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법위반에 대해 남달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매한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전매해 권리금 등 명목으로 4억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 광양소방, 불꽃·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생활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광양=김현근기자



### 완도해경, 설 명절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9일, 외부에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완도군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